

아메리카 럭셔리 감성 뿐뿐… 고속·산길주행에도 차체 든든



캐딜락 XT5

캐딜락 특유의 디자인으로 강한 인상 실내 ‘천연가죽+고급원목’ 럭셔리 2열 좌석 공간 좁아… 호불호 예상



캐딜락 XT5 외관(좌) 실내(우)



/양성운 기자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현대차·기아를 비롯해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 등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이 다양한 차량을 출시하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분야기도 하다. 그 중 캐딜락 XT5는 뛰어난 퍼포먼스와 럭셔리 디자인으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XT5는 에스컬레이드와 함께 캐딜락의 성장을 이끄는 모델이다. 첨단 기술을 탑재한 2022년형 연식 변경 모델의 시승을 통해 차량을 매력을 알아봤다. 시승 구간은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강원도 횡성까지 약 250km 구간에서 진행했다.

캐딜락 XT5의 외관은 캐딜락 특유

의 도심형 럭셔리 감성을 담아 고급스러움이 묻어났다.

전면부는 캐딜락 전매특허인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대형 엠블럼을 적용해 프리미엄 감성과 함께 캐딜락 특유의 강인한 인상을 표현한다. 측면부와 후면부는 날렵하면서도 균육질의 디자인을 채택해 모던한 브랜드의 정체성을 담았다.

실내 인테리어는 간결하면서도 캐딜락의 럭셔리한 감성도 묻어난다. 천연 가죽과 고급 원목을 적용해 고급감을 높였고 조작부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차에 어려움을 갖는 운전자를 위한 HD 리어 카메라 미러는 각도와 밝기 조절 그리고 확대·축소 기능을 추가해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준다. 차량의 360도 모든 곳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HD 서라운드 비전도 장착되어 있다.

실내 공간도 부족함이 없다. 전장 4815mm, 전폭 1905mm, 전고 1685mm, 축거 2856mm로 현대차 쏘나타보다 길고 넓다. BMW X3와 메르세데스-GLC보다 차체가 긴 편이다. 덕분에 실내 공간도 넓은 편이다. 1, 2열 모두 여유가 있고 트렁크 용량은 845L로 넉넉하다.

주행성능은 매력적이다. 시동을 걸면 3.6L V6 가솔린 엔진의 힘이 온몸에 느껴진다. 중형 SUV 경쟁 모델들과 달리 과급기로 엔진 힘을 높이는 터보차저 등을 사용하지 않는 자연흡기 방식 엔진으로 부드러운 음색이 일품이다.

이 엔진은 9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려 네 바퀴에 구동력을 전달한다. 최고 출력 314마력, 최대 토크 37.4kg.m의 성능으로 도심과 고속 구간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 특히 단단한 하체는 고속 주행에서 안정감을 더한다. 굽이진 좁은 산길을 주행할 때도 차체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줬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2열 시트다. 2열 시트 좌석 공간이 좁아 탑승자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XT5가 인증받은 복합 연비는 8.0km/L지만 효율성은 뛰어났다. 다양한 구간에서 급가속과 급제동을 했지만 10.8km/L를 기록했다. 이날 시승한 2022년형 XT5는 프리미엄 럭셔리 트림으로 가격은 6843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최정우 “친환경 미래소재 대표 기업 도약”

(포스코 회장)

포스코 친환경소재 포럼 2022

탄소중립 상징 브랜드 ‘그리닛’ 론칭
LG전자 등 매스 밸런스형 제품 협약

포스코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상징하는 통합 브랜드 ‘그리닛’(Greenate)을 론칭했다.

포스코는 1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8개국 560여개 고객사가 참여한 가운데 ‘친환경소재 포럼 2022’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리닛은 포스코의 친환경차 제품 브랜드 이오토포스(e Autopos), 프리미엄 강건재 브랜드 이노빌트(INNOVILT), 친환경 에너지용 강재 통합 브랜드 그린어블(Greenable) 등 3대 친환경 브랜드 제품뿐 아니라 저탄소 철강 제품과 관련 기술·공정을 모두 포괄하는



포스코가 1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친환경소재 포럼 2022’를 개최했다. 포스코그룹 최정우 회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브랜드다.

포스코그룹은 앞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새로운 브랜드인 그리닛을 통해 알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포스코는 이날 LG전자, 불보 건설기계와 ‘매스 밸런스형’ 저탄소 강재 제품 공급·구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OU)을 체결했다.

매스 밸런스형 저탄소 강재는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탄소배출량 감축 실적이 반영된 제품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사도 그만큼의 탄소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포스코가 이 제품 관련 협약을 체결한 건 처음이다.

포스코는 이날 행사에서 제품 추천과 주문·출하 현황, 시황 전망 등을 실시간으로 고객사에 안내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체험존도 선보였다. 포스코는 내년부터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100년 기업을 지향하는 포스코는 저탄소 사회를 선도하고 친환경 미래 소재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포스코인터내셔널, 하이퍼루프 사업 추진

캡슐형태 객차 운송… 서울~부산 20분 주파

네덜란드 HARDT 하이퍼루프 협력

공상과학 영화에서 등장하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밀폐된 튜브와 이를 오가는 캡슐 형태의 객차로 운송하는 ‘하이퍼루프’ 시스템 도입이 현실화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하이퍼루프 기업인 네덜란드의 HARDT 하이퍼루프(HARDT Hyperloop)사와 손잡고 차세대 미래 운송 수단인 하이퍼루프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1일 인천 송도에서 주시보 사장과 베르트랑 반 이 HARDT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네덜란드에 건설 중인 하이퍼루프 시범단지 EHC(European Hyperloop Center) 향 포스코 강재 공급 ▲하이퍼루프 사업 마케팅 공동 협력 ▲HARDT 향 지분 투자 계획을 포함해 포괄적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협업하기로 했다.

하이퍼루프는 음속을 뚫는 ‘하이퍼소닉(Hypersonic)’과 연결고리를 뜻

하는 ‘루프(Loop)’의 합성어다. 공기 저항이 거의 없는 아진공(0.001 기압) 상태의 튜브 내부를 자기부상 캡슐이 초고속으로 이동하는 신개념 운송수단이다.

특히 시속 1200km의 속도를 구현할 수 있어 서울~부산 거리를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꿈의 이동수단으로 불리기도 한다. 2016년에 설립된 네덜란드 HARDT는 2017년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주최한 하이퍼루프 컨테스트에서 우승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양성운 기자

LGU+, 농어촌 5G 공동망 품질 개선 나서

100MHz 폭 활용 5G 서비스 제공

LG유플러스가 농어촌 5G 공동망 품질 개선에 나선다.

설악산 대청봉 등에서도 5G를 기통하고 전국 품질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가 1일부터 자사가 구축한 농어촌 5G 공동망 지역에 100MHz 폭 주파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3.4~3.42GHz 대역 20MHz 폭 주파수를 할당받은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기존 3.42~3.5GHz 80MHz 폭 주파수와 함께 도합 100MHz 폭을 이용해 농어촌 공동망 구

축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어촌 공동망 구축지역에서는 LG유플러스 외에 다른 통신사의 가입자도 새로 할당된 주파수를 통해 향상된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권준혁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문장(전무)은 “11월부터 LG유플러스가 5G 커버리지를 구축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가입한 통신사에 관계없이 누구나 100MHz 주파수로 최고의 5G 품질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적인 5G 서비스 품질 개선과 고객만족을 위해 빈틈 없는 구축작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운정 기자 echo@

게임피아

‘MOZART REQUIEM’ 발매

게임피아는 Hoplite Research LLC가 개발한 어드벤처 게임 PlayStation 4 ‘MOZART REQUIEM’ 디지털 버전을 지난달 31일 국내 정식 발매했다고 1일 밝혔다.

본 제품은 한국어 자막을 공식으로 지원한다.

‘MOZART REQUIEM’의 배경은 1788년 프라하로, 오페라 ‘돈 지오반니’를 성공적으로 마친 음악의 천재 모차르트의 시점에서 게임이 진행되며 다양한 퍼즐을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30시간 이상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최빛나 기자

컴투스, ‘에스엠엔터’ 투자… 99만주 취득

컴투스는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자 글로벌 K컬처를 선도하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에 투자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 컴투스가 취득한 에스엠의 주식은 99만여 주, 약 4.2%이다.

컴투스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에스엠의 현재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으며 향후 성장 가치가 높다는 판단으로 이번 투자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컴투스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향후 논의를 통해 사업적 시너지를 창출해 각 사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